
碩士學位請求論文

北韓의 主體思想教育에 관한 研究

- 中等教科와 관련해서 -

指導教授 高 性 俊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朴 勳 蘭

1989年度

北韓의 主體思想 教育에 관한 研究
- 中等教科와 관련해서 -

이 논문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提出者 朴 勳 蘭

指導教授 高 性 俊

1989年 月 日

朴勅蘭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89年 月 日



主審 

副審 

副審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目 次

I. 序 論	1
1. 研究의 目的	1
2. 研究의 範圍 및 方法	2
II. 主體思想 教育의 性格	4
1. 主體思想의 思想優位性	4
2. 主體思想과 教育	6
III. 主體思想 教育의 內容	9
1. 主體思想 教育의 原理	9
가. 階級教育 — 階級意識 高취를 위한 教養教育	9
나. 共產主義 優位性 教育	10
다. 革命精神 涵養教育	15
라. 金日成 偶像化 教育	16
2. 主體思想 教育의 實際 — 高等中學校 正規 教科課程 —	17
가. 教育課程 編制	18
나. 教科內容	23
IV. 主體思想 教育의 方法	27
1. 教授活動을 통한 方法	27
가. 解說과 說服의 方法	28
나. 問答의 方法	30
다. 肯定的 模範으로 感化시키는 方法	32

2. 課外活動을 통한 方法	34
가. 革命的 組織生活의 方法	35
나. 社會 政治活動의 方法	37
V. 結 論	41
참 고 문 헌	44
ABSTRACT	48

I. 序 論

1. 研究의 目的

本 研究의 目的은 북한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른바 주체사상 교육의 분석을 통해서 그것이 북한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다.

우리 民族은 單一民族으로서 같은 역사와 문화 전통 속에 民族共同體를 이루어 생활해 왔으나, 세계 제2차대전 이후 남북 분단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심화됨으로써 민족상잔의 비극을 겪는 동안 한 민족의 동질적인 民族文化는 異質的인 政治理念과 相異한 社會體制로 인하여 異質化되어 왔다. 더욱이 북한은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하고 특히 주체사상을 수립하고 행함에 있어서 한 민족의 전통사상을 왜곡하여 이용함으로써 북한에 있어서 한민족의 전통문화는 크게 변질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本 研究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오늘날 북한사회에서 공식 이데올로기화¹⁾한 주체사상이 어떻게 교육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그것이 청소년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체사상이 어떠한

1) 「北韓」에서의 ‘主體思想’의 위치는 憲法과 黨規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북한」헌법 제4조에 보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마르크스 - 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하고 있으며, 1980년 10월 13일 改正된 勞動黨 規約에도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주체사상’을 公式 이데올로기로 삼고 있다. 방점은 필자가 찍은 것임. 각 내용은 「北韓總覽」(서울: 北韓研究所, 1985), p.1751 과, 東亞日報社, 「北韓, 1945~1988」(新東亞, 1989, 1月號 별책 부록), p.341. 재인용.

교육적 性格을 가지며, 어떤 內容을 가지고, 어떤 方法으로 북한의 요구하는 인간상을 주조하기 위해 주입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수행되는 「북한」의 주체사상 교육에 관한 本 研究는 전반적인 「북한」 교육의 제문제를 밝힘으로써 사상교육에 있어서 남·북간의 비교 연구에 도움이 되고 또한 북한의 장래를 예측하는 데도 도움이 됨으로써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남·북한의 분단이 장기화될 것을 전망할 경우 중등교과와 관련한 주체사상 교육의 고찰은 북한의 正體를 이해하고 統一에 대비하는 교육을 強化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질 것으로 본다.

2. 研究의 範圍 및 方法

本 研究는 전항의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을 중심으로 수행된다.

- (1) 주체사상의 내용 중에서 교육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2) 주체사상과 교육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 (3) 주체사상 교육은 어떠한 교육원리를 가지고 있는가?
- (4) 실제 고등중학교 정규 교과과정에는 주체사상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 (5) 주체사상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학습되고 있는가?
- (6) 이러한 주체사상 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주체사상 교육의 장래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구명하는 本 論文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에서는 주체사상 교육의 성격을 두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먼저, 주체사상의 사상우위적 입장을 살펴본 후에, 주체사상과 교육의 관계를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주체사상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주체교육의 원리를 4가지 측면(계급교육, 공산주의 우위성 교육, 혁명정신 함양교육, 김일성 이상화 교육)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교육의 원리가 실제 고등중학교 교과과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규명한다.

제Ⅳ장에서는, 주체사상 교육의 방법을 교수활동을 통한 방법과 과외 활동을 통한 방법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결론에서는 전반적인 북한의 주체사상 교육에 대한 앞 장의 연구결과를 개괄하고 주체사상 교육의 추진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과 전망을 살펴본다.

本 研究를 수행하는 재료와 방법은 북한의 고등중학교 교과와 관련된 주체사상 교육에 대해 1·2次 자료들을 위주로 文獻을 분석하는 것이다.

本 本研의 수행과정과 결과에는 여러 制限點이 있음을 전제해 두고자 한다. 그것은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공통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인데 본 연구자 역시 북한의 교육현장을 직접 조사할 수 없었다는 데서 나오는 제한점들이다. 예를들면 일차자료에 의하여 어떤 교육이론이 표방되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그것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를 측정키는 곤란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사회는 全體主義的 閉鎖된 사회이기 때문에 理論과 實際의 연결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II. 主體思想 教育의 性格

1. 主體思想의 思想優位性

金日成의 ‘主體思想’은 人間中心 世界觀, 勤勞大衆集團主義, 絶對主義의 세 가지를 中核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 세 가지 생각을 인민대중에게 주입하여 意識改造를 통한 人間改造를 성취하여 1人 支配체제를 영속화시키려는 意識的 노력의 표현이 곧 金日成 主體思想이라고 볼 수 있다²⁾ 즉, 人間中心 世界觀은 階級思想으로 확장하여 勤勞大衆 集團主義가 되고 여기에서 다시 革命論理가 첨가되면서 絶對主義로 변한다. 다시말하면, 勞動階級, 勤勞大衆은 스스로 정치적 자각을 얻지 못해 혁명의지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勞動階級の 탁월한 首領’이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근본 요구와 이익을 반영한 革命思想을 내놓고 그것을 指導的 指針으로 하는 당을 창건하고 그의 革命的 領導를 실현함으로써만 勞動階級은 비로소 ‘自主的 革命階級’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인민대중의 이익이 무엇인지 밝혀주는 首領과 그의 指導를 실현하는 黨이 있어야만 인민대중은 革命意志를 갖게 된다는 論理이다. 그리고 首領의 唯一的 領導體系가 확립되어 全黨과 全體 勤勞大衆이 首領의 革命思想으로 튼튼히 武裝하고 首領의 영도를 따라 나갈 때만 근로인민 대중은 自主的 立場에 확고히 설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論理를 따르면, 革命은 1人의 영도와 그 영도를 무조건 따르는 대중의 복종이라는 絶對主義의 前提 밑에서만 추진되게 되어 있다³⁾

따라서 대중의 복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思想的 要塞’를 점령하는 길 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2) 李相禹, 「韓國의 安保環境」 제 2집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1986), p.391.

3) 위의 책, p.393.

이처럼 인간개조에 있어서 그 기본을 사상개조에 두고 있는 것은 주체사상에서 주장하고 있는바 사람의 자주성·창조성·의식성이라는 사회적 속성중에서 자주적 사상의식이 모든 행동을 규제하고 조절·통제한다는 이론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北韓」에서는 인간 개조를 위한 思想改造事業을 ‘하나의 심각한 혁명이며 계급투쟁’으로 보고 있다. 즉 “사상혁명(사상혁명은 혁명의 선행관이며, 사상혁명을 앞세워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여야 인간 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그들의 혁명적 열의를 높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다)”⁴⁾고 하고 있으며, “사상개조란 사람들의 사상의식 영역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종국적으로 없애고 모든 근로자들을 선진적인 노동계급의 사상·공산주의 사상으로 벌어지는 계급투쟁의 기본 형식을 이룬다 하고, 그러한 사상개조의 기본은 혁명적 세계관, 혁명관을 세우는 것”⁵⁾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혁명관은 주체의 혁명관이며, 주체의 혁명관은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에 대하여 관점과 입장으로서, 이러한 주체의 혁명관의 核을 이루는 것은 黨과 首領에 대한 忠實性이다. 이러한 혁명관을 세우기 위해서는 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높여 나가야 하며, ② 공산주의적 혁명정신을 소유하여야 하며, ③ 혁명적 조직생활 속에서 혁명적 실천 속에서 단련되어야 한다⁶⁾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체사상의 승패는 바로 인간개조를 위한 사상개조 사업에 있는 만큼, 이를 위해서 교육은 절대적 역할을 담당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주체사상 교육에 있어서의 학교교육이 차지하는 역할은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前文에 나타나 있다.

북한의 당면한 目標로서 공산주의의 思想的 要塞와 物質的 要塞를 점령하는 일

4) 사회과학출판사,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 주체사상 총서 3 (서울: 백산서당, 1988), p.216.

5)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하수도/한백린, 「김일성 사상 비판」 (서울: 백두, 1988), p.323.

6) 위의 논문, pp.323-324.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목표중 가장 중요한 것은 思想的 要塞를 점령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물질적 요소는 사회의 주인인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 개조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前文에서는 北韓에서의 教育이란 “……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 개조하여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는 데 선차적 힘을 넣어야 한다 ……”⁷⁾ 라고 지적하고 있다.

2. 主體思想과 教育

「北韓」의 주장에 따르면, 학습은 사람들의 生活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부분으로, 사람들의 생활에서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학습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람은 그저 먹고, 입고, 쓰고, 사는 것만으로는 참담하게 산다고 할 수 없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자면 혁명적인 사상과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하면서 목적지향성 있게 살아야 하는데, 이러한 사상과 지식은 학습을 통해서 얻게 된다.⁸⁾ 라고 教育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의의를 갖는 교육에 있어서 주체사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떠한가.

金日成은 “우리의 교육기관은 주체사상 교육의 전당이며,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은 주체사상으로 일관되어야 하며, 모든 교육기관들에서 주체사상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학생들을 고등중학교를 나온 때에는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의 골격이 서고 대학을 나올 때에는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이 확고히 선 일꾼으로 키워야 한다”⁹⁾ 라고 하여 그 비중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7) 金日成,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금성청년출판사편, 「주체의 학습론」 부록 (서울: 미래사, 1989), p.211.

8) 금성 청년출판사, 「주체의 학습론」 (서울: 미래사, 1989), p.7.

9) 김정일, 앞 논문, p.334.

1977년 9월 5일 金日成이 勞動黨 중앙위원회 제 5기 제 14차 전원회의에서 北韓教育 전반에 관한 指針書인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¹⁰⁾에서도 주체사상과 교육의 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 첫째는 교육을 당의 唯一思想 체제와 접목시킨 점이다.

교육사업에서 당의 유일한 사상체제를 세우는 목적은 사람들을 당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가로 키우는 데 있다. 사회주의 교육의 모든 공간들은 사람들을 당에 충실한 혁명전사로 키우는 데 복무하여야 하며 교육사업의 전과정은 당에 대한 충실성 교양으로 일관되어야 한다.

교육분야에서 당의 유일사상 체제를 세우는 사업은 당을 정치 사상적으로 옹호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어 있다. 교육분야에서 비당적인 사상요소와 불건전한 경향이 침습하지 못하게 하며, 그 사소한 표현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투쟁을 벌려야 한다.¹¹⁾

둘째는, 교육에서의 주체의 강조이다. 즉, 이들은 교육에서 주체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주의 교육은 구체적 환경에서 살며, 활동하는 산 인간을 키우는 창조적 사업이다. 모든 나라의 구체적 환경과 조건에 다 들어맞는 교육이론이나 경험은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이론 실천적 문제들을 우리나라의 현실과 조선혁명의 이익에 맞게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독창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자기나라의 것을 기본으로 하여 가르

10) 北韓에서는 이 「테제」를 가리켜 「김일성의 主體思想을 구현한 주체의 교육강령이며,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 교육에 참다운 길을 명시한 教育綱領」, 또는 「교육에 관한 이론, 실천적 문제에 과학적 해답을 주는 백과전서이며 教育叢書」라고 찬양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 「테제」 공포일인 9월 5일을 教育節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11) 金日成, 앞의 논문, p.215.

치며 사람들이 자기의 것에 정통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조선사람은 조선에서 혁명을 하고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여야 한다.¹²⁾

또한 이 「태제」에서는 당의 방침과 영도에 대한 복종의 필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당의 의도와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교육사업 전반을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조직 진행하여야 하며 교수를 당 정책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교육은 당의 지도 밑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당의 영도를 떠나서는 교육사업에서 당의 의도와 정책적 요구를 관철할 수 없다. 당의 영도를 강화하여 교육사업에서 '자유주의'와 무규율성을 없애고 모든 교수 교양사업은 당의 방침대로 진행하는 혁명적 규율을 세워야 한다.¹³⁾

이와 같이 「北韓」에 있어서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 주체사상은 唯一·無誤謬의 지도이념으로 절대화되어 있고, 이에 대한 학습 자체가 북한 교육에 중요한 내용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교육은 사회주의 교육의 基本命題인 「個人은 全體를 위하여, 全體는 個人을 위하여」를 唯一思想 體系의 強調로, 「全體」를 「金日成 主體思想」으로 대치시킴에 따라 사회주의 교육의 보편성을 잃어버렸다고 하겠다.

12) 위의 논문, pp.216 - 217.

13) 위의 논문, p.215.

Ⅲ. 主體思想 教育의 內容

북한의 모든 教科課程은 政治思想 教育을 최우선시 하는 방향으로 짜여져 있다. 人文系統의 교과서에는 물론 自然科學系統의 교과, 예를들면 수학이나 물리학에서도 정치사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체제」에서 “정치사상 교육을 잘 하는 기초 위에서만 과학기술교육과 체육교육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으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주체사상 교육의 내용을 고찰함에 있어서, 주체사상 교육의 원리와 주체사상 교육의 실제 두 가지 측면으로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1. 主體思想 教育의 原理

가. 階級教育 — 階級意識 고취를 위한 教養教育

주체사상에서는 인간개조를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인간개조를 위한 사상개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계급교육이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혁명과 개조를 통해서 착취계급이 청산된 사회주의하에서는 인민대중 속에 잔존해 있는 낡은 사상을 제거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케 하는 것이 계급 투쟁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들은 青年時節부터 착취계급과 착취제도의 반동적 本質에 대한 옳은 認識에 기초하여 그것을 끝없이 증오하고 그것을 때려부술 각오와 결심, 투지를 튼튼히 다져나가게 해야 한다고 한다. 金正日은 “우리 청소년들은 계국주의의 압박도, 지주, 자본가의 착취도 받아보지 못하였으며, 혁명의 시련도

겪어보지 못하고 고이 자라고 있다. 이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단련하지 않는다면, 우리 조국과 부모들의 쓰라린 과거를 잊을 수 있으며 혁명의식이 마비될 수 있다”¹⁴⁾ 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그들의 革命的 思想意識은 저절로 생겨나거나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實踐과 教養을 통해서만 배양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계급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地主와 資本家들의 착취를 구체적인 實例를 들어서 가르치도록 指示하고 있다. 그래서 교사들은 地主와 資本家들을 肥大하고 표독스러운 인간으로 묘사하고 서민들을 餓死直前の 皮骨이 相接한 可憐한 인간으로 비유함으로써 착취현상을 설명하고 있다.¹⁵⁾

또한 북한에서는 주민에 대한 階級位階秩序¹⁶⁾를 정하여 사회내의 階級意識 고취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 역시 階級教養教育의 效果를 높이기 위한 사회내의 분위기 조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나. 共產主義 優位性 教育

(1) 共產主義制度 優位性 教育

공산주의제도 우위성 교육은 唯物辯證法에 입각한 唯物史觀의 내용¹⁷⁾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14) 강운민/사회과학출판사, 『인간개조이론』 주체사상총서 6 (서울: 조국, 1989), p.133.

15) 『北韓政治體系 研究』 (서울: 亞細亞研究所, 1973), p.209.

16) 북한사회의 階層分類를 ‘核心階級’ - 주민의 28%, ‘基本階級’ - 21%, ‘非基本階級’ - 51%로 구분하고 있다. 金震泰外, 『韓國政治論』 (서울: 박영사, 1984), p.764 참조.

17) 唯物史觀 內容: 사회를 움직이는 根本的인 원동력은 生産力이며 이 生産力에 알맞는 生産方法이 있고, 이 生産方法을 中心으로 生産關係가 成立된다. 그리고 生産력과 生産關係가 사회의 下部構造를 이루고 이 下部構造에 의해 政治·法律·宗教·哲學 등이 사회의 上部構造가 決定된다. 따라서 人類社會는 生産力의 발전에 따라 原始共產社會에서 奴隸社會, 封建社會를 거쳐 資本主義社會로 發展해 왔고, 다시 共產主義社會로 발전한다. 梁好民·康仁德外, 『共產主義 批判』 (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82), pp.297~298 참조.

金日成은 “모든 사회관계의 기초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이며, 온갖 계급적 차이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에 의하여 규정된다”¹⁸⁾ 라고 지적하면서 主體思想의 사회역사 원리로서 勞動階級の 社會歷史觀¹⁹⁾ 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른 북한 학교에서의 唯物史觀에 대한 교육내용을 살펴보면²⁰⁾

첫째로, 資本主義는 역사발전 법칙에 따라 帝國主義가 되며, 帝國主義는 자기 모순에 의하여 반드시 멸망하고 共產主義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내용을 교육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제국주의 社會制度의 여러 모순점을 비판하는 것이 주내용이 된다.

둘째로, 帝國主義가 멸망하면 共產社會가 도래하고 共產社會는 階級없는 社會가 되고 착취없는 社會가 되어 勞動者는 勞動의 能力에 따라 배급을 받고 生活하는 사회가 된다. 따라서 共產主義는 반드시 승리하고 또 共產主義制度가 資本主義 社會制度보다 우수하다고 교육한다.

셋째로, 帝國主義가 공산사회로 移行되는 데는 반드시 폭력에 의한 革命이 불가피하다고 하고 폭력혁명 없이는 生産手段을 소유할 수 없으며 따라서 경제관계를 개선시킬 수 없다는 것을 교육하며, 폭력혁명을 成功的으로 수행해 나가려면 공산주의 전략·전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교육한다. 공산주의적 世界觀에서는 혁명의 正當性 및 공산당 정권의 合理性을 교육 내용으로 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2) 勞動(愛護思想) 教育

金日成이 “사람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물질적 및 정신적인 모든 재부들은

18) 사회과학출판사편, 「주체사상의 사회역사 원리」, 주체사상총서 2 (서울: 백산, 1989), p.59.

19) 勞動階級の 사회역사관은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意識을 규정한다는 原理를 확립하고 사회 역사적 과정을 물질적 부의 생산방법의 발전과정으로, 사회 경제 구성태의 교체과정으로 해석하고, 사회역사는 그 어떤 탁월한 개인에 의하여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인민대중에 의하여 창조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투쟁무대에 나선 노동계급에게 資本主義의 멸망과 社會主義의 승리의 필연성을 깨우쳐주기 위하여서는 唯物辯證法的 見解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한다. 위의 책, p.14.

20) 徐積株, “北韓의 共產主義教育 理念 및 實態” 「통일논총」 제 2 집 (부산: 부산대 통일문제연구소, 1979), p.115.

다 우리의 끊임없는 로동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²¹⁾ 라고 말하고 있듯이 北韓에서는 勞動生活을 集團의 存在와 發展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여기고 있다. 즉, 노동생활 과정에서만 自然을 대상으로 하는 共同生活이 이루어지고 사람들 사이의 경제적 관계가 보장되며 그 基礎 위에서 사회의 集團生活이 전면적으로 실현된다. 勞動은 사람들을 결합시키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집단을 떠난 勞動生活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勞動生活이 없는 사람들의 集團으로서 사회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사회는 곧 物質的 財富을 創造하기 위한 사람들의 勞動生活이 이루어지는 集團으로 된다²²⁾ 라고 勞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북한의 각급 학교의 교과내용은 一般敎科와 技術敎科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技術敎育이 바로 노동교육을 구체화시킨 것으로 노동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實際로, 북한에서는 1959년 3월 2일, 「학생 사회의무노동제를 실시하는 데 대한 내각 결정 제 18호」를 채택한 이후, 고등중학교 이상 학교에 대한 「사회 의무 노동제」를 실시하고 있다. 다음의 <表 1>은 각급 학교별 勞動實習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表 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각급 학교별 勞動實習 내용 기간²³⁾

각급학교 노동종별	대 학	고등기술학교	고 등 학교	중 학 교	인민학교
공 업 노 동	4 주	4 주	2 주	2 주	.
건 설 노 동	4 주	4 주	4 주	2 주	.
농 접 노 동	2 주	2 주	2 주	2 주	2 주
계	10 주	10 주	8 주	6 주	2 주

21) 사회과학출판사전, 앞의 책, p.49.

22) 위의 책, p.51.

2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의 自己發見」 (서울: 정신문화원, 1981), p.404.

그리고 11年制 의무교육 실시를 계기로 實用性 있는 교육을 力說하면서 역시 노동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一般基礎科目, 즉 자연과학에 중점을 두어 과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의 과목의 비중을 높일 것을 강조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자동차, 트랙터를 운전케 하고, 공작기술을 다루는 기능을 습득시키고 있다.²⁴⁾

(3) 集團主義 教育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 唱導되는 集團主義는 마르크스·레닌의 政治思想的 教리의 核心을 이루고 있다. 집단주의적 교육체제의 확립과 그 효율적 운용은 프롤레타리아 계급독재를 위한 정치적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간주된다.²⁵⁾

북한의 集團主義精神은 社會主義 憲法과 새로 改正된 勞動黨 黨規約에도 잘 나타나 있다.²⁶⁾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주의 사회는 개인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資本主義 사회와는 달리 集團主義에 기초하고 있는 우월한 사회라고 한다. 集團主義는 사람들의 自主的이며 創造的인 생활의 本性的 요구이며, 특히 勞動階級의 고유한 思想精神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일정한 社會集團의 한 성원으로 서 살고 活動하는 社會的 存在이며, 사람은 社會的으로만 自己의 存在를 유지하고 自己의 目的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본질적 특성인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도 사회적인 집단생활을 통하여 형성 발전되며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물질 문

24) 徐禧殊, 앞 논문, p.117.

25) 李中, “集團主義的 教育體制: 그 規範과 運用,” 고현옥의 12人,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7), p.281.

26) 북한헌법 제 49 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라고 규정, 제 68 조에는 “공민은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공민은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며, 사회와 인민의 이익, 조국과 혁명의 이익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워야 한다”라고 규정. 방침은 필자가 찍은 것임. 그리고 5次 개정안인 「당규약」에 따르면, “당의 유일사상 체제를 철저히 확립하고, 모든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범을 따라 개조하면서 정치사상적으로 혁명대열을 공고히 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촉진시키기 위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화적 재부도 집단적인 활동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개별적 사람들의 힘과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로 합쳐질 때에는 무한한 위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로부터 집단주의 사상을 가지고 집단주의적 원칙에 따라 활동하는 것은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본성적 요구로 된다.²⁷⁾

北韓의 집단주의에 대한 정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집단주의는 수령과 혁명, 조직과 집단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공산주의적 혁명정신으로서 그것은 로동계급의 계급적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본질적 특성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은 사회경제적 처지와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자본계급을 반대하는 공동 투쟁에서 개인의 리익보다 조직과 집단의 리익을 앞세우며 자기 희생, 조직성, 규율성을 가지는 혁명적인 계급이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집단주의가 지배하게 된다. 집단주의는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 통일을 강화하고 그들 속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위업에 헌신하려는 공통된 지향과 열의를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며 사회주의 사회제도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필수적 담보로 된다. 또한 집단주의 정신을 키우는 것은 … 근로대중을 혁명화·로동 계급화하는 데에서 큰 역할을 한다. … 집단주의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직접 조직, 령도하신 항일혁명 전쟁 시기에 발생하였으며 … 집단주의의 최고 표현은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다. … 근로자들을 집단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 교양과 그리고 혁명전통 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야 한다. 또한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 교양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머리 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뽑고, 그들을 혁명화·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²⁸⁾

27) 사회과학출판사편,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론」, 주체사상 총서 5 (서울:태백, 1989), p.62 참조.

28)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p.1082~1083, 李中, 알 논문, pp.287-288 재인용.

이러한 집단주의 정신은 학교 교육의 목적·내용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 그것은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공산주의적인 새 인간으로 키운다”라고 한 1972년에 개정된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 39 조와 “사회주의 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로 키우는 것이다. 사회주의 교육은 사람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로 키움으로써 사회주의 제도를 위하여 복무하며, 로동계급의 혁명 위업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²⁹⁾라는 김일성의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체제」에 근거하고 있다.

다. 革命精神 涵養 教育

학습의 혁명적 본질과 그것이 혁명 투쟁과 건설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분석해 볼 때 “학습은 하나의 혁명사업”³⁰⁾이며, 학습이 혁명사업이라는 것은 그것이 곧 낡은 것을 없애고 새 것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 근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학습 그 자체가 사람들을 교양 개조하여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 혁명가로 키우는 사상, 문화 혁명이며, 학습을 잘해야 혁명가로서의 정치적 생명을 끝없이 빛내이며, 혁명 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다³¹⁾고 한다.

北韓은 金日成의 혁명사상을 주민들에게 널리 傳播하는 「혁명전통 교양사업」을 크게 벌여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力說하고 있다.

혁명전통 교양은 모든 근로자들과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수령이 개척하고 령도하는 혁명 투쟁 과정에서 이룩된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사상교양이며, 이는 수령의 령도 밑에서 로동계급의 혁명 위업이 개척되고 승리적으로 전진하는 과정에 수령에 의하여 창시되고 발전, 풍부화된

29) 金日成, 앞 논문, p.212.

30) 金성청년출판사, 앞의 책, p.19.

31) 위의 책, pp.19-20.

혁명전통이다. 따라서 혁명전통은 당과 혁명의 역사적 뿌리로, 그대를 이어주는 핏줄기로 되는 끝없이 귀중한 혁명적 재부이며,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 개조하는 고귀한 밑천이며, 혁명전통에 간고하고 장구한 혁명 투쟁과정에서 수령에 의하여 이룩된 사상체계와 고귀한 혁명업적, 풍부한 투쟁경험, 혁명적 사업 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이 전면적으로 구현되고 집대성되어 있다.³²⁾ 혁명전통 교양사업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모든 주민들은 黨性, 勞動階級性, 人民性으로 무장해야 하며, 이밖에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백전불굴의 혁명위업에 대한 필승의 신념, 숭고한 혁명적 동지애를 가져야 한다³³⁾는 것이다.

라. 金日成 偶像化 教育

金日成 주체사상의 실천과 그를 통한 사회건설에 대하여 北韓에서는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자면 반드시 지도와 대중이 결합되어야 하며 옳은 지도에 의해서만 사회역사 발전에서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주체의 수령관’을 피력한다.

주 “로동계급의 수령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고 혁명의 뇌수이며 당과 인민대중의 이익의 최고 체현자이며… 金日成 동지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자주적 발전의 길을 열어놓는 역사의 새 시대, 주체 시대를 개척하여 인류와 역사 앞에 불멸의 공헌을 한 위대한 수령이다”³⁴⁾ 라고 김일성을 찬양하고 있다.

金日成 이상화에 관련된 내용의 학습 및 행동교습은 학년이 낮을수록 量이 많고 학년이 높을수록 공산주의 세계관 형성에 관련된 내용이 많다. 金日成 이상화의 중요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32) 강운빈 지음 / 사회과학출판사, 앞의 책, pp.173-174.

33) 「노동신문」論說, 1964.10.2. 徐禮侏, 앞 논문, p.118 재인용.

34) 사회과학출판사,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 주체사상 총서 2 (서울:백산, 1989), p.195.

(1) 김일성의 항일 유격활동

(2) 김일성의 국내외 공산당 지도활동

(3) 김일성 一家의 혁명활동

(4) 김일성의 유년시절의 조국애 등³⁵⁾의 과거 업적에다가 민족인류의 영원한 지도이념이라는 주체사상을 포함시켜 놓고 있다. 이것은 김일성을 단순히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북한 사회의 정치적 지도자라는 관념에서부터 비약하여 민족해방의 중심인물이라고 조작함으로써 그를 마치 전 민족의 유일한 지도자인 양 북한 주민들에게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들어 북한은 6次 당대회 (1980년 10월) 후, 金正日의 권력계승을 합리화하고 지지하는 대대적인 선전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러한 부자권력 계승이라는 당노선에 부응하여 북한 교육은 김일성-김정일 권력계승의 불가피성, 정당성, 그리고 김일성 우상화에 버금가는 김정일 우상화의 심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자라나는 세대에게 이것을 의식화하기 위하여 탁아소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전 교육기관에서 철저한 김일성-김정일 英雄化·首領論을 펼치고 있다.



2. 主體思想 교육의 實際 - 고등중학교 正規教科과정 -

북한에서는 교육연령중 특히 중등학교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김일성은 “청년시절은 사람들의 一生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육체적으로 완전히 성숙될 뿐아니라 정치·경제·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며 정신적 발전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시기에 청년들을 잘 교양하여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³⁶⁾ 라고 말했으며 1977년 9월부

35) 『北韓 社會文化 構造의 解剖』, (서울: 自由評論社), p.41.

36) 강운빈/사회과학출판사, 앞의 책, p.132.

더 실시한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도 이러한 의도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11년제 의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中等一般 교육의 내용을 옹계 구성하고 그것을 정확히 執行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北韓에 있어, 中等義務教育의 基本目的은 “모든 새 세대들을 망라하여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과학기술적으로 준비시킴으로써 그들을 혁명적 세계관의 골격이 서고 완성된 중등지식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건설자로 키우는 데 있다”³⁷⁾ 라고 밝히고 있다.

이 논문이 주체사상 교육을 연구함에 있어서 고등중학교 정규 교과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점은 이런 측면에서 의의를 갖고 있다 할 것이다.

가. 教育課程 編制

북한의 고등중학교에서는 1~6년간에 걸쳐서 총 24개 교과목을 가르친다. 다음의 <表2>는 학과목을 授業시간의 비중치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해 본 것이다. 비교를 위하여 참고로 우리나라의 중등학교 교육과정 (1987, 3월 공포) 상의 교과목 명칭 및 비중치를 같이 나열했다.

전체적인 학과목 영역의 비중을 살펴보면, 북한의 경우 수학을 위시한 과학계통의 학과목이 전체 비중의 41.6%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語學(국어, 문학, 한문, 외국어)으로 22.8%, 그리고 정치사상 영역(金日成 혁명역사 및 활동, 현행 당정책, 특강, 공산주의 도덕 등)이 11.6%, 사회영역이 9.3%, 예·체능이 7.6%의 구성비를 갖고 있다.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表3>과 같다.

37) 위의 책, p.148.

〈表 2〉 교과목 명칭 및 비중순위³⁸⁾

比重 順位	北 韓		우 리 나 라			
	高等中學校	比重 值%	中 學 校	比重 值%	高等學校 (人文社會系)	比重 值%
1	수 학	18.4	국 어	14.5	국 어	15.7
2	국 어 문 학	11.6	수 학	11.4	영 어	11.2
3	물 리	8.3	과 학	11.4	수 학	7.8
4	외 국 어	7.5	영 어	10.4	체 육	7.8
5	화 학	5.8	체 육	9.3	교 련	6.7
6	생 물	5.6	사 회	7.3	제 2 외 국 어	5.6
7	지 리	5.1	선 택 (기술·가정)	7.3	선 택 (과학)	4.5
8	체 육	4.5	도 덕	6.2	선 택 (예능)	4.5
9	역 사	4.2	음 악	5.2	한 문	4.5
10	한 문	3.7	미 술	5.2	선 택 (기술·가정)	4.5
11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 혁명 역사	3.0	국 사	4.2	선 택 (농공·상수)	4.5
12	특 강	2.9	선 택 (농공·상수)	4.2	국 사	3.4
13	여학생 실습 및 공 작실습 (남)	2.8	한 문	3.1	국 민 윤 리	3.4
14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 혁명 활동	2.7				
15	기술기능실습 (5, 6년)	2.7				
16	음 악	2.1				
17	현 행 당 정 책	1.5				

(계속)

38) 文龍麟, 「北韓의 學校教育課程 分析— 人民學校 및 高等中學校 —」 (서울: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87), p.19. <表 2>는 북한의 정무원 산하의 교육위원회 보통교육부에서 1983년 3월에 펴낸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의 교육 「課程案」에 의한 것임.

(表2 계속)

比重 順位	北 韓		우 리 나 라			
	高等中學校	比重 值(%)	中 學 校	比重 值(%)	高等學校 (人文社會系)	比重 值(%)
18	공산주의 도덕	1.3				
19	자 연	1.0				
20	위 생 독 본	1.0				
21	미 술	1.0				
22	제 도	0.9				
23	기 초 기 술	0.8				
24	전기·농업기본	0.8				
	총 24 과 목	100 (%)	총 13 과 목	100 (%)	총 13 과 목	100 (%)

〈表3〉 학과목 영역별 비중치 (%)³⁹⁾

領 域	北 韓	우 리 나 라
	高等中學校	中 學 校
數學·科學系 (機械·電氣基礎 包含)	41.6 %	22.8 %
國語·外國語	22.8 %	22.8 %
政治·思想	11.6 %	6.2 %
社 會	9.3 % (地理, 歷史)	11.5 % (一般社會, 地理, 歷史 등)
藝 · 體 能	7.6 %	19.7 %
其 他	15 %	17 %
計	總 6,626 時間 (100 %)	總 1,088 時間 (100 %)

39) 위의 책, p.21 참조.

〈表3〉에서 보듯이 고등중학교 교육과정의 核心的 요소는 수학과 과학에 있다. 이들이 갖는 구성비(41.6%)는 우리나라 중학교의 비중(22.8%)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높다. 정치·사상교육의 경우에도 북한의 것은 우리나라의 2배에 가깝다. 그러나 사회현실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는 영역(즉, 一般社會)에서는 비중치가 오히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社會」를 가르침으로써, 현실비판의식이 高揚될 우려를 감안한 교과목의 전제가 아닌가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교육 「과정안」을 토대로 고등중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주체사상을 교육시키기 위한 교과목의 특징을 살펴보면, 교과과정 속에 현행 당정책, 특강 등의 정치·사상교육 과목을 公式的으로 설정해 놓음으로써 학교 밖으로부터 오는 교육에 대한 요구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1983~1984 학년도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는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의 교육 「과정안」의 「해설」부분에 명백히 밝혀져 있다.

“「고등중학교 현행 당정책」과목의 교수는 과정안의 학기와 시간수에 구애됨이 없이 학습제강이 내려가는 데 따라 조직할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고전적 로작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은 6학년 「현행 당정책」 교수시간 안에서 20시간 배워줄 것이다.”⁴⁰⁾

이러한 指針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現行黨政策」 학과목의 설치는 학교와 당, 또는 정책부서와 학교간의 긴밀한 의사교환의 창구로서 의도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주체사상 교육은 1960년도의 교과목과 비교해 볼 때 날로 강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表4〉는 1960년과 1983년 교육과정(학과목) 비교이다.

40) 위의 책, pp.22~23 재인용.

〈表 4〉 中等學校 教育過程 (學科) 比較⁴¹⁾
 (1960 年과 1983 年)

比重 順位	1983 ~ 84	比重值 (%)	1960	比重值 (%)
1	數 學	18.4	文 學	12.6
2	國 語 文 學	11.6	體 育	11.1
3	物 理	8.3	算 數	9.1
4	外 國 語	7.5	로 어	9.1
5	化 學	5.8	國 語	8.0
6	生 物	5.6	대 수	6.1
7	地 理	5.1	實 習	6.1
8	體 育	4.5	朝 鮮 史	5.5
9	歷 史	4.2	物 理	5.0
10	漢 文	3.7	植 物	4.0
11	위대한 首領 김일성 원수님 革命 歷史	3.0	기 하	4.0
12	特 講	2.9	自 然 地 理	3.0
13	女學生實習 및 工作實習 (男)	2.8	世 界 地 理	3.0
14	위대한 首領 김일성 원수님 革命 活動	2.7	동 물	3.0
15	技術·技能實習 (5·6)	2.7	衛 生	3.0
16	音 樂	2.1	世 界 史	2.6
17	현 행 당 정 책	1.5	化 學	2.0
18	共 産 主 義 道 德	1.3	朝 鮮 地 理	2.0
19	自 然	1.0	音 樂	2.0
20	衛 生 讀 本	1.0	도 화	2.0
21	미 술	1.0	가 사 재 봉	1.0
22	제 도 (4, 5, 6 학년)	0.9	제 도	1.0
23	기초기술 (4 ~ 6)	0.8		
24	電氣·農業基本 (4 ~ 6)	0.8		
	總 24 科目 3,420 時間	100 %	總 22 科目 3,369 時間	100 %

41) 위의 책, p.33 참조.

<表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0년대초와 1983년도 교육과정의 특징적인 차이는 精神·思想 교육과목의 대폭적인 신설이다.

-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 혁명 역사 (3.0 %)
- (2) 특강 (2.9 %)
- (3)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 혁명 활동 (2.7 %)
- (4) 현행 당정책 (1.5 %)
- (5) 공산주의 도덕 (1.3 %)

이상의 다섯 과목은 북한의 주체사상 교육을 강화하는 공식적인 교과목이라 할 수 있다.

나. 敎科內容

북한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를 여러 차례 개편해 왔다. 1960년까지는 대체로 소련판 교재를 번역하여 사용해 왔고, 그후 거듭된 개편 과정에서 북한식 共產主義 敎養과 金日成 偶像化를 위한 내용을 보강해 왔다. 역사, 국어, 사회과목은 물론이고, 수학, 물리, 화학, 음악, 미술 등의 교과목에 있어서도 金日成 숭배사상의 주입을 위한 치밀한 編制上의 주의가 경주되어 있다.⁴²⁾

북한의 교과서와 교재들은 철저히 주체적 입장에서 로동계급의 견지에서 만드는 것이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된다. 학생들을 혁명적으로 교육 교양하려면 그 기본 수단인 교과서, 교재 자체를 社會主義 敎育學의 原理에 基礎하여 만들어야 한다. 우선 모든 교과서들에 ‘우리 당의 유일사상이 관통되게’ 하여야 하며, 조선혁명 수행에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 담겨있게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교과서는 ‘높은 階級的’ 입장과 철저한 ‘主體的’ 입장에서 만들어야 한다.⁴³⁾

42) 李中, 앞의 논문, p.315.

43) 위의 논문, p.316.

주체사상 교육에 있어서 교과서를 중요시하는 정도가 높은 만큼 자급 학교와 학력수준에 따른 系列性이나 교육목표와의 一貫性도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저학년일수록 感情的인 측면의 교육내용을 많이 하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知的 이해를 필요로 하는 정치이론이나 철학 등을 점차로 늘려가는 方法을 쓰고 있다. 그리고 당의 조직요원들을 최대로 활용하고, 또 유능한 교원들을 중앙에 소환하여 그들이 1년 동안 가르치고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교과서의 내용을 거의 매년 개편해 오고 있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⁴⁴⁾

바로 이러한 점에서 교과서의 분석을 통해 북한 주체사상 교육을 잘 파악해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在日 조총련 산하 조선인 중고등학교에서 1973년부터 사용해 오고 있는 國語 교과내용에 포함된 주체사상 교육의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⁴⁵⁾

(1) 金日成 우상화에 대해— 김일성의 諸行動을 영웅화하고 그의 언행을 모방토록 권장하고 있다.

(가) 세 살 난 어린이가 金日成 노래를 부름 (中2, 243-249面)

(나) 首領을 보고 싶은 생각에 아침밥이고 다 잊었다.

(다) 金日成과 勞動黨에 의해 우리굴이 쓰이게 되었다.

(라) 해바라기가 태양을 따르듯이 首領의 교시를 따라 生活한다 (中3, 151-152面)

(마) 金日成의 가르침으로 모든 고난과 애로를 극복 (中2, 201-207面)

44) 朴容憲, “北韓教科書의 內容,” 『北韓』 (1975), pp.104~111.

45) 在日조선인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 과목의 내용들은 교육실시 지역 및 피교육대상이 일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와는 내용상에 약간 다르도록 편찬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내용이 북한의 학제에 맞추어져 실시되고 있으며, 특히 1972년 9월, 북한의 학제중 6년제 고등중학이 새로이 개편, 설치되자 조총련 산하 3년제 중학 및 3년제 고등학교와 맞먹는 학제로 되어 교과목 내용에서도 조총련제의 학교의 교육내용과 북한의 고등중학교의 교과서 내용과는 별로 다를 바 없으므로 조총련제 학교의 교과서를 통해 북한의 교과서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北韓總覽』 (서울: 北韓研究所, 1985), pp. 1306~1312 참조.

(2) 反美·反日 투쟁의식 고취에 대하여— 남한 강점과 만행의 주체가 미국과 일본임을 인식시키도록 한다.

(가)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은 美帝와 日帝를 반대하여 싸우는 길뿐이다.

(中 2, 110-113 面)

(나) 모든 불행은 日本帝國主義者들이 우리 祖國을 빼앗은 탓이다. (中 3,

254-260 面)

(다) 모든 비극의 근원은 美帝侵略者들과 日本帝國主義者들이 남한을 강점하

고, 그들의 식민지로 예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中 2, 176-182 面)

(라) 美帝는 사람 죽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中 2, 170-174 面)

(마) 美·日 侵略者들과 그 주구들에게 죽음의 철퇴를 안기라. (中 3, 49-

53 面)

(바) 美帝生活樣式은 유해로운 生活哲學이다. (中 3, 170-174 面)

(3) 金日成과 黨을 위한 결사대— 黨과 金日成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는 희생정신을 강조한다.

(가) 黨과 金日成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깝지 않다. (中 2, 208-229 面)

(나) 목숨을 바쳐 싸워 勞動黨員의 영예를 지니자. (中 2, 220-229 面)

(다) 단결과 투쟁만이 조국과 인민이 사는 길이다. (中 2, 176-182 面)

(4) 社會主義 國家體制의 優越性 強調— 資本主義社會의 모순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社會主義 國家의 優越性を 強調한다.

(가) 공화국 북반부는 勞動黨과 金日成의 領導 밑에 위대한 번영과 육성의 시

기에 들어섰다. (中 2, 176-182 面)

(나) 노동자, 농민이 힘을 합쳐 지배계급과 투쟁하고 지주와 자본가를 청산

하자. (中 3, 216-229 面)

(다) 오늘의 平壤은 공화국의 수도로서 과거 우리 역사에서 그 유례를 보지 못하는 위대한 발전과 번영 속에 시각을 다투어 확충되어 가고 있다.

(中 2 , 149-157 面)

(5) 革命傳統敎養— 金日成의 抗日 빨치산 투쟁기 학습을 통해 혁명정신을 고취한다.

(가) 혁명정신을 무장시키기 위해 普天堡로 떠난다. (中 3 , 103-109 面)

(나) 金日成을 수반하는 抗日 빨치산의 역사를 학습하는 것은 우리의 영예로운 임무이다. (中 2 , 130-132 面)

이와 같이 國語敎科書가 政治思想 敎科書라는 인상이 들 정도로 非國語的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만 봐도 주체사상이 제반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가히 짐작하게 한다.



IV. 主體思想 敎育의 方法

「사회주의 敎育에 관한 테제」에서는 敎育方法으로서 ① 깨우쳐 주는 敎育, ② 이론敎育과 실천敎育, 敎育과 生産勞動의 결합, ③ 組織生活, 社會政治 活動의 강화, ④ 학교敎育과 사회敎育의 결합, ⑤ 학교前敎育, 학교敎育, 성인敎育의 並進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理論敎育과 實踐敎育, 敎育과 生産勞動의 結合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우선, 공산주의자들이 革命을 하나의 實踐運動으로 보는 그들의 行動指針에서 비롯된 것이다. 북한의 敎育方法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敎授活動을 통한 方法

敎授는 計劃的 構案的인 敎育을 본질로 삼는 학교敎育의 주요 활동이며, 기본 요소로서 도야·훈육의 합목적적 조직적 계획적 통일적인 실현을 기도하는 中核的인 敎育活動을 말한다.⁴⁶⁾ 「사회주의 敎育에 관한 테제」, 「주체의 학습론」, 그리고 「인간 개조 이론」은 敎授活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해설과 설복의 방법, 문답의 방법, 그리고 긍정적 모범으로 감화시키는 방법을 지적하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各方法을 分析하면 다음과 같다.

46) 金學守, 「現代敎授—學習論」(서울: 敎育科學社, 1983), p. 21.

가. 解説과 說服의 方法

이 방법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사상교양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서 학생들을 수긍케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도 “공산주의 사상은 학생들이 자신이 스스로 깨닫고 공감할 때 비로소 그들의 확고한 신념으로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상 교양은 강압적 방법이나 들이먹이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반드시 해설과 설복의 방법으로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선진사상을 스스로 깨닫고 공감하게 하여야 하며 결합이 있거나 뒤떨어진 사람에 대하여서도 잘 타일러 그가 자기의 결합과 부족점을 스스로 깨우치고 고치도록 하여야 한다”⁴⁷⁾고 지적하고 있다.

이 해설과 설복의 방법은 사상개조사업 자체의 특성과 공산주의 사상의 본성, 사상의식 형성 발전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구현하고 있는 가장 과학적인 사상개조 방법이며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훌륭히 실현해 나가는 ‘위력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同方法은 人間の 자주성을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同方法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여 사물과 현상의 본질과 내용을 자신의 능력에 의해 판단하며 인식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서 사람의 自主性을 존중하는 주체사상에 기초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식 활동에서 자주성을 가지고 있는 存在라는 데서 이 方法이 매우 과학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주체사상총서 「인간개조 이론」의 사상개조 방법에 잘 나타나 있다.⁴⁸⁾ 사상개조는 사람들의 내면세계를 개변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사람들 자신의 자각성을 발동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인식의 주체인 사람의 능동적인 사고활동에 의하여 사물현상의 본질이 인식되고 사물현상의 본질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혁명적 세계관이 형성되고 공고 발전되는 사상의식 발전의 합

47) 金日成, 앞의 논문, p.226.

48) 강운번 / 사회과학 출판사편, 앞의 책, pp.202~206, 참조.

법칙성에 맞으며 그것을 정확히 구현하고 있는 사상개조의 방법이 바로 해설과 설복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둘째로, 同方法이 비강압적이고 事理에 맞는 방법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해설과 설복의 방법이 소위 「착취사회」에서의 강제적 방법, 주입식 방법과는 근본적으로 대립된다고 하면서 그러한 「착취사회」에서의 사상과 이론은 非科學性과 虛僞로 일관되어 있는데 만일 학생들의 사고에서 자주성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인식활동을 허용한다면 착취계급의 사상과 이론의 비과학성과 허위성이 당장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며 공산주의자는 어떤 조건하에서도 인민 위에 군림하여 명령하고 호령하며 강요할 권리가 없으며 오직 대중을 꾸준히 해설 설복하여 자각적으로 혁명투쟁에 나서도록 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지어 김정일도 “명령하고 호령하는 관료주의적 방법으로서는 결코 사람들의 자각적 열성을 불러 일으킬 수 없습니다. 타이르고 깨우쳐 주는 설복과 교양의 방법에 의해서만 사람들을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무궁무진한 창조적 힘을 남김없이 발양시킬 수 있으며 당과 대중과의 연계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 수 있습니다”⁴⁹⁾ 라고 하였다.

셋째로 그들이 말하는 「착취사회」 즉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방법과의 비교를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思想과 理論은 非科學性과 虛僞로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제적 방법, 들이먹이는 방법은 착취계급이 근로대중의 이해관계와 대립되는 자기의 사상을 대중속에 주입시키기 위하여 적용하는 방법이며 권력의 힘으로 사람들의 사상을 무모한 방법으로서 그것은 공산주의 교육방법과는 인연이 없는 것이다. 반면에, 해설과 설복의 방법은 사람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의 본질과 내용, 그 정당성과

49) 김정일, 앞의 논문, p. 326.

불패의 생활력을 일깨워주고 설득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공산주의 사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사상으로 받아들이게 하며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게 하는 科學的인 교육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에서 해설과 설복의 구체적인 형식과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⁵⁰⁾ 그 예로는 선전과 선동, 강연과 강습, 담화와 이야기 모임, 예술선전과 직관선동, 그리고 반복학습 등이다. 이 반복학습에 대해서 김일성은 “한 번 교양하여 안되면 두 번 교양하고 두 번하여 안되면 세 번 하고 그래도 안되면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참을성 있게 꾸준히 교양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매개 학생들의 구체적 특성과 준비 정도에 맞게 그리고 꾸준히 참을성 있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설과 설복의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들을 옹기 결함시키고 잘 이용하는 것은 사상교양의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방법으로서의 해설과 설복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사상개조 사업을 힘 있게 다그쳐 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고 한다.

나. 問答의 方法

이 방법은 교사와 학생간에 또 학생들 상호간에 서로 묻고 대답하는 방법이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도 問答式 方法은 “당의 전통적인 학습방법으로서 이미 실생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뚜렷이 증명되었다. 문답식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는 것은 학생들에게 교수내용을 폭넓고 깊이 있게 인식시키기 위한 담보로 된다.”⁵¹⁾ 고 지적한 바 있다.

문답식 방법을 주장하는 근거는 그들의 「주체의 학습론」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⁵²⁾ 첫째로, 同方法이 학습에서의 형식주의, 교조주의의 낡은 방법을

50) 강운빈 / 사회과학출판사편, 앞의 책, pp. 207~208 참조.

51) 金日成, 앞의 논문, p.226.

52) 금성청년출판사편, 앞의 책, pp. 122 ~124 참조.

철저히 없애고 학습을 실속있게 조직함으로써 하나를 배워도 똑똑히 배울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학습과정에서 서로 토론하고 질문을 통하여 문제의 본질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현실적이면서 생동한 표상을 가지고 학습내용을 깊이 체득하게 된다고 하였다.

둘째로는, 同方法이 학습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학습을 잘해 나갈 수 있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어느 학습이나 통제나 강요에 못이겨 하는 것은 큰 성과를 거둘 수 없는데 이 학습방법은 서로 편을 갈라서 경쟁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열의를 높일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책임성으로써 뿐 아니라 집단의 명예를 위해서도 학습에 성실히 참가하게 되며, 자기의 정치실무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게 된다고 하였다.

셋째로는, 同方法은 학습에서 집단적인 통제와 동지 상호간의 방조를 강화함으로써 학습을 게을리하는 현상을 없애고 온 집단에 혁명적 학습기풍을 튼튼히 세우게 한다는 데 그 우월성이 있다고 하였다. 어떤 학습에 대한 자각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여기에 통제를 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문답식 학습방법은 누구나 지명되면 무조건 나가서 대답하여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학습하지 않고는 배겨날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이다. 그리고 문답식 학습방법은 집단의 명예를 걸고 진행하는 학습이기 때문에 이런 집단속의 경쟁속에서 개인의 명예보다 집단의 명예를 더 생각하게 되고 집단의 명예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학습을 게을리하는 현상을 철저히 없애게 하며 온 집단에 혁명적 학습기풍을 튼튼히 세우게 된다는 것이다.

넷째는, 同方法이 학습을 실천과 결부시킴으로써 대중을 혁명사업 수행에 성과적으로 組織 動員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들이 학습을 하는 길인은 혁명실천에 실제로서 먹을 수 있는 산 지식을 체득케 하는데 있는데 문답식 학습

에서는 내용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하기 위한 課業과 方途를 놓고 토론을 하므로 학습을 혁명과업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시킨다고 하였다.

이러한 問答의 方法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⁵³⁾,

첫째로, 문답식 방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문답식 학습방법은 학습총화 때나 하는 그릇된 태도를 버리고 그것을 일상적인 학습에서 벌려야 하며, 동지 상호간, 집단 상호간에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활발히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로는, 문답식 학습방법이 '선수' 본위주의적으로 나가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선수본위주의로 나간다면 문답식 학습방법의 본질적 우월성을 옹호 발양시킬 수 없으며 학습에서의 형식주의, 교조주의의 잔재도 철저히 극복할 수 없게 된다고 하였다.

셋째로는, 기계적으로 외워 바치는 현상을 철저히 없애야 한다. 줄줄 외우는 학습태도는 학습에서 형식주의를 낳는 또하나의 온상이 된다 하였다.

문답식 학습방법은 학습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인간개조와 사회개조를 다 같이 힘있게 다그쳐 나가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학습방법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다.

다. 肯定的 模範으로 感化시키는 方法

이 방법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사상교양을 긍정적으로 나타내는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의적인 면을 움직이려는 것이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도 “긍정적 모범은 부정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으로 되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하며 생활해야 하는가를 생동하게 가르쳐 준다. 따라서 긍정적 모범은 사람들 속에서 부정을 이겨내고 새것, 진보적인 것을 조장 발전시키는 힘 있는 추동력으로 된다.”⁵⁴⁾고 하였다.

53) 위의 책, pp.124~125 참조.

54) 金日成, 앞의 논문, p.226.

긍정적 모범으로 감화시키는 방법을 주장하는 근거로서 그들은, 첫째로, 同方法이 사회주의 사회의 본질적 특성에 맞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주체사상 총서의 하나인 「인간개조 이론」에 따르면, “부정적인 것이 지배하는 착취사회와는 달리 사회주의 사회는 긍정적인 것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근로인민 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자유로운 발전의 길이 열리며, 사람들은 새롭고 선진적인 것, 아름답고 고상한 것, 긍정적인 것을 지향하며 그것을 창조해 나간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 속에서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더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 당과 수령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싸우는 고상한 공산주의적 미저가 끊임없이 발양된다.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발양되는 긍정적 모범은 광범한 인민대중 속에서 지지와 공명을 불러일으키며 그것은 곧 전사회적인 것으로 일반화되고 보편화된다.”⁵⁵⁾ 라고 하였다.

둘째로, 同方法이 우리나라의 民族的 特性에 맞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우리조상들은 침략자와 착취자를 반대하는 정의로운 투쟁에서 용감하였으며 권력이나 재물보다도 진리와 도덕을 귀중히 여겼으며 늙은이를 존경하고 부모 처자를 사랑하며 가난 속에서도 이웃을 서로 돕는 것과 같은 전통적 미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덕 관념이 강하고 따라서 긍정적 모범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하다고 하였다. 김일성도 이와 관련지어 “먼 옛날부터 발전된 문화생활을 하여온 우리 인민은 진리에 대한 탐구심이 크고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매우 강합니다. 이렇게 도덕 관념이 강한 민족에게는 긍정적인 모범으로 감화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라고 하였다.

셋째로, 학생들의 心理的 特性을 지적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새 것에 대한 민감성과 탐구심, 훌륭하고 비범한 일에 대한 동경과 해보려는 지향, 모범에 대한 커다

55) 강운빈 / 사회과학출판사원, 앞의 책, pp. 211~212.

56) 정세구, “북한의 청소년 사상 교양방법,” 「國民精神 教育의 課題」(서울; 교육과학사, 1985) pp. 279~280 참조.

란 감동 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 모범을 잘 따른다고 하였다. 김일성도 “청소년들은 새것을 배우려는 의욕이 제일 왕성하며 훌륭하고 비범한 큰 일을 해 보려는 영웅심이 강하며 다른 사람의 모범에 깊이 감동되며 그 모범을 따르기를 좋아합니다.”라고 하였다.⁵⁷⁾

이러한 긍정적 모범으로 감화시키는 학습방법은 학습자들이 가진 긍정적인 측면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적극 지지하여 줌으로써 자신의 적극적인 노력과 투쟁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발전시키고 부정적인 측면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어쨌든 긍정적 모범으로 감화시키는 학습방법은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사상개조 방법이며 가장 효과적으로 실속있게 해 나가는 사상개조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2. 課外活動을 통한 方法

과외활동은 학생들이 정규적으로 받는 교실수업 외에 학교의 안팎에서 벌이는 실제 활동을 말한다. 앞에서 고찰한 교수활동이 주로 교사에 의하여 주도되는 교실내 활동이라 한다면 이는 학생들의 교실 밖에서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로 소년단 및 사로청 조직생활을 통하여 이를 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외활동이 강조되는 이유는 후대들을 革命的 世界觀이 선 공산주의 혁명가로 키우기 위해서는 앞에서 본 教授活動 즉 그들이 말하는 ‘교수 교양 과정’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이에 ‘정치사상적 단련과정’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교육사업과 조직생활의 배합의 필요성이다.

과외활동을 통한 대표적 방법으로서 그들은 ‘혁명적 조직생활을 통한 방법’과 ‘사회 정치활동을 통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57) 위의 논문, p. 280.

가. 革命的 組織生活의 方法

이 방법은 학생들로 하여금 조직적 생활에 가담케 함으로써 사상교양의 목표를 달성케 하려는 것이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도, “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 교양의 학교이다. 청소년 학생들은 소년단, 사로청 조직생활을 통하여 사상적 교양을 받고 혁명적 단련을 쌓으며 조직성과 규율성을 키운다. 높은 사상성과 강한 조직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는 오직 혁명적 조직생활을 통해서만 자라날 수 있다.⁵⁸⁾”고 하였다.

혁명적 조직생활을 주장하는 근거로서⁵⁹⁾ 그들은 첫째로, 지식 위주의 교육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회주의 교육이론에서 ‘낡은 教育方法’은 이른바 정치로부터의 교육의 독립을 표방하면서 학생들을 사회와 인민,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는 관심없는 글뉘주로, 자본가 계급의 노복으로 전환시키는 데 복무한다고 하였고, 또 김일성도 “사람들의 혁명적 세계관은 조직생활을 통해서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이나 많이 읽으면 혁명적 세계관이 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직생활을 떠나서는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하여도 혁명적 세계관을 세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조직생활을 통해서만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혁명가로 단련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둘째로, 공산주의자의 중요한 표징의 하나인 강한 혁명적 조직성이 오직 조직생활을 통하여서 키워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들은 노동계급에게 있어서 조직성은 자본가 계급을 반대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어렵고 복잡한 투쟁에서 필승불패의 힘의 원천이라고 하였다. 또 조직성은 그들 수령 김일성의 유일적 영도를 받는 일정한 조직의 성원으로서 조직을 사랑하며 조직의 이익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조직에 철저히 의거하고 조직의 규율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조직의 위임분공을

58) 金日成, 앞의 논문, p. 228.

59) 정세구, 앞의 논문, pp. 283~284 참조.

무조건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직성이 오직 조직생활을 통하여 이룩되는 이유는 그 생활이 온갖 비조직적이며 無規律的인 行動을 허용하지 않으며 조직에 망라된 모든 성원들이 유일한 조직규율에 의하여 사고와 행동에서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통일성과 조직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김일성도 이와 관련지어 “공산주의자의 중요한 표징의 하나는 강한 혁명적 조직성에 있습니다. 공산주의자의 중요한 표징의 하나는 강한 혁명적 조직성에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혁명적 정신으로 일관된 높은 사상성과 함께 강한 혁명적 조직성을 가져야만 참다운 공산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자의 혁명적 조직성은 혁명적 조직생활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강화됩니다.” 라고 하였다.

셋째로, 이 방법은 강압적으로 사상교양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생활을 통해 이를 이룰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사회주의 교육이론에서는, 부르조아 교육학에 의거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학생들을 때리고 처벌하는 방법으로 통제한다고 하고 이것은 사람의 자주성을 무시하고 사람을 물건, 상품으로 취급하는 자본주의 사회제도의 필연적 산물이라고 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사람의 자주성을 존중한다는 그들의 사회주의 제도하에서는 처벌이 아니라 조직생활을 통하여 학생 자신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집단적으로 교양시킨다고 하였다. 또 뒤이어 사람들의 품격과 사상은 어려서부터 형성되며, 따라서 어린시절부터 조직생활을 통하여 좋은 교양을 주고 좋은 버릇을 길러주는 것은 그들의 장래 발전에 큰 영향을 주며 후대들을 어려서부터 소년단, 사로청 생활을 세대별로 하게 한다면 조직생활과 규율생활이 버릇되고 집단주의 정신과 공산주의 품성이 싹트고 형성 발전되며 조직적 생활기풍에 물젓게 된다고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조직생활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에서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조직의 결정과 위임분공을 제때에 성실히 수행하는 것 및 비판을 통하여 사상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前者는 소년단과 사로청 생활에서 조

직으로부터 분공을 받고 그 실행한 바를 보고하고 다시 분공을 받고 그것을 수행해 나가는 활동을 말하고, 비판은 낡은 思想殘滓, 學習과 生活에서 나타나는 결함들을 낱알이 찾아내어 그 원인을 명확히 할 뿐 아니라 그 克服方途까지 찾아내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나. 社會 政治活動의 方法

이 방법도 혁명적 조직생활을 통한 방법과 비슷한 것으로서 학생들을 사회 정치 활동에 적극 참가시킴으로써 그들이 말하는 혁명적 세계관이 선 혁명가로 키우려는 것이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도 “사회정치활동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현실에 적용하는 실천활동이며 사회주의 건설에 직접 이바지하는 혁명활동이다. 학생들을 사회정치활동에 널리 참가시킴으로써 그들을 어려서부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할 줄 아는 참다운 사회의 주인으로 군중을 교양하고 조직 동원할 줄 아는 능력있는 사회정치활동가로 키워야 한다.”⁶⁰⁾ 고 하였다.

사회정치활동의 방법을 주장하는 근거로서⁶¹⁾ 그들은 첫째로, 혁명적 세계관은 실천을 통하여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사회주의 교육이론에서는 이 방법은 후대들을 실천투쟁에 진입시킴으로써 산 정치활동가로서의 사상과 풍모를 빨리 갖추어 나가게 한다고 하였다. 혁명적 실천투쟁이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이며 사람들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실천투쟁 속에서만 끊임없이 단련되고 혁명가로, 산 정치활동가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둘째로, 同方法이 학생들의 연령심리적 특성에 맞는 과학적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청소년 시기에는 지식에 대한 탐구력과 영웅심도 생기며 사회활동을 위

60) 金日成, 앞의 논문, p. 229.

61) 정재구, 앞의 논문, pp. 286~287 참조.

한 욕망이 강하고 대중 앞에 나서고 싶어하며 새것에 대한 민감성, 정의감, 진리에 대한 탐구력이 강한 청소년들의 연령심리적 특성을 좋은 방향으로 조장 발전시키는 것은 그들의 세계관과 인격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일성도 그의 저작선집에서 “학생들의 머리는 사진기와 같이 보고 듣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이때에는 심리적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몸도 날마다 부쩍부쩍 늘어납니다. 이 시절에는 많은 것을 빨리 알자고 하고 배우려 하며 영웅심도 생기고 무엇인가 하고 싶어하며 어디에 나서고도 싶어합니다. 더우기 학생시절에는 새것을 좋아하고 정의감이 강하고 진리를 탐구하려는 욕망도 많습니다…”라고 하였다.

셋째로, 同方法이 현실과 결부된 산 지식을 갖게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였다. 현실과 결부되지 않은 지식은 그것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의 주체사상과 혁명전통에 대하여 깊이 알아야 하며 조선의 자연자원과 기후풍토를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 청소년들을 사회정치활동에 적극 참가시키는 것은 현실 속에서 실천을 통하여 당정책의 正當性, 偉大性과 조선의 구체적 현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하였다. 김일성도 그의 저작선집에서 “서적이냐 학교는 청년들에게 지식을 주며 선진적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을 지어줄 따름입니다. 청년들이 서적과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자연과 사회를 개조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되기 위하여서는 그것이 실생활과 결부되어야 하며 그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실천적 투쟁에서 단련되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와 같은 정당성에 따라 수행하는 정치활동의 내용은 당정책 선전대, 과학선전대, 위생선전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선전대를 조직하여, 대중속에서 당정책 해설, 과학기술 지식과 문화위생 지식 보급, 또한 위생근위대, 녹화근위대 활동과 소년단립, 사로청림을 조성하는 운동, 사회주의 건설 지원운동을 비롯한 여

러 가지 좋은 일 하기 운동 등등이다.⁶²⁾

이러한 정치사회활동이 다양함은 그들의 학교를 하나의 사상교양소로 전락시키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좀더 보충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노동 청년동맹의 과업⁶³⁾」을 살펴보면,

첫째, 청년들을 당의 사상체제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당 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지키며, 당의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 관철한다.

둘째, 자력갱생의 혁명적 旗幟를 높이 들고 천리마 운동의 大高潮를 계속 견지하며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축적시켜 사회주의·공산주의를 더 잘, 더 빨리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셋째, 청년들 속에서 학습기풍을 세우고 그들에게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과 우리 당 정책, 김일성 동지의 勞作을 깊이 연구 체득시키며 공산주의 사상과 우리당의 혁명 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계급적 원수를 미워하고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 제도를 반대하며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투쟁한다.

넷째, 남반부를 美제국주의의 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반동 정치에서 해방하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다섯째, 공화국 남반부의 노동청년·농민청년·학생청년들을 비롯한 각계 각종 청년들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하며, 그들의 과거생활과 정치적 견해, 신앙의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며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애국청년들과 굳게 단결한다.

여섯째, 우리 당의 계급노선과 균중노선을 관철하며 각계 각종 청년들을 공산주

62) 金日成, 앞의 논문, p. 229.

63) 徐東翼, 「북에서 사난 모습」(서울: 북한연구소, 1987), pp. 72~73 참조.

의적으로 교양·개조하여 당 주위에 튼튼히 묶어 세운다, 등을 그들은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과업의 요구 속에서 북한의 청소년이 正常的 학교수업 外에 얼마나 많은 활동을 강요당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V. 結 論

중등교과와 관련한 북한 주체사상 교육의 分析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교과목이 ‘主體思想’ 교육의 원리를 素材로 하는 政治·思想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教育課程上에 나타난 시간 비중은 수학·국어·정치·사상·도덕의 순서로, 수학·과학 과목의 41.6%, 국어·문학 계열(국어, 외국어)이 22.8%로 도합 64.2%가 道具教科에 쏠려 있다. 정치·사상·도덕은 11%의 비중으로 우리나라(3.4~6.2%) 보다는 훨씬 높으나 역시 고등중학교 전체로 볼 때 主宗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국어교과서를 살펴본 바와 같이 국어와 같은 다른 교과들(정치·사상·도덕 이외)의 기술내용은 정치·사상·도덕의 문제를 素材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教科書의 記述方式 및 素材까지를 考慮한다면 정치·사상·도덕적 메시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그들이 주장하는 思想的 要點를 점령하기 위한 수단이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로, 북한의 교육과정은 理論과 實踐을 적절히 배열시킨 교육을 전개하려는 의도하에서, 현행 당정책,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 활동, 야영 훈련, 생산노동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는, 우선 사회화의 단위이며 배경인 학교, 사회를 모두 철저히 통제할 수 있고 학교내에서도 교실내에서 벌어지는 교수 활동에서부터 교실외에서의 課外活動까지를 전부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의 ‘주체사상’ 교육이란 그것 자체가 어떤 바람직한 시민상을 기르는 수단으로 생각하기에는 거리가 멀고 全體主義 教育의 전형적 슬로건인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원칙하에서 움직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도적으로 반응을 나타내도록 조건이 형성된 북한의 새 세대들

과 교육제도가 반드시 공산사회에 이익만 주고 長點이 된다고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自我意識과 독자적인 판단능력을 상실케 하고 오직 김일성의 명령적인 事態下에서 특히 독재체제에 異常이 생겼을 경우에는 烏合之衆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강요된 힘과 자각된 힘의 대결은 指揮體系가 正常的인 경우에는 그 힘의 總量에 따라 勝敗를 판가름한다. 그러나 非正常的 事態下에서는 힘의 質이 勝敗를 결정하게 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북한」 공산당은 젊은 세대들에게 공산당이 만들어 놓은 테두리 속에서만 숨쉬고 생각하도록 훈련시키고 있으나, 그 테두리 自體가 공산권의 자유화 경향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고정 불변할 수 없는 변경된 상황하에서 「북한」 젊은이들에게 시기적절하게 진로를 가르쳐 주고 인도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김일성 집단내에 이상기운이 발생하였을 때도 문제가 된다. 김일성을 신격화한 「혁명 전통교양」이 공산권 정세의 변함으로, 또는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예기하지 않았던 사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북한」 젊은이들은 求心點을 잃은 데로부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체사상」 교육이 이 상태로 진행되고, 국토분단 상태가 상당한 시일, 더 연장될 경우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 문제는 주체사상 교육이 인간개조에 미치는 한계점에 관한 문제와 관련성을 가진다. 注入式 教化教育으로 인간의 본능을 말살하고 인간성 자체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전환시킬 수는 없다. 설사 어느정도의 成果를 거둘 수 있다 하더라도 변동된 조건하에서도 還元되지 않는 主體型의 人間像이란 어려운 것으로 짐작된다. 그것은 반세기를 공산통치하에서 經過한 소련이나, 그밖에 다른 공산국가 국민들의 실례가 웅변해 주고 있다시피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希求하는 것은 인간의 本性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랜 「주체사상」 교육은 인간성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거나 세계관 및 인생관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북한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社會主義 교육은 학생들의 자주, 창의가 당이나 김일성의 자주와 창의성과 같동한다는 근본적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이 북한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북한의 교육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 개조를 위한 사상사업이라는 점이다. 그 이유는 ‘주체사상’은 처음부터 革命을 지도하는 혁명 이데올로기로 발전된 것이 아니고 김일성 집단이 통치권을 장악한 후 이를 正當化하는 理論으로 만들어진 統治 이데올로기의 특성을 지닌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의 교육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교육과는 다른 ‘주체교육’으로서 사회주의 교육의 보편적 특성과는 거리가 먼 교육으로 변화해 버렸다.

끝으로, 북한의 이러한 주체사상 교육을 전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대다수 공산주의 국가들은 전형적인 교육이론적 논쟁을 갖고 있다. 즉, 정치·사상교육(紅)과 전문·기술교육(專)의 같동, 공산주의 이념의 확산과 정통성의 확립을 위한 방도로서 개인숭배 또는 우상화와 개인숭배에 의존하지 않고 공산주의에서 파생되는 집단규범의 확산과 방도 사이에 같동한다.

현재, 북한은 정치·사상교육(紅)과 우상화에 치중하고 있지만, 김일성의 사후에는 개인숭배의 열기가 식게 됨에 따라 북한의 교육도 소련이나 중공의 교육처럼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변화되면, 개인숭배에 대한 정치교육이 아니라 집단이념 그 자체의 확산을 위한 정치교육이 의도되고, 학교교육의 내용에는 정치·사상보다는 전문·기술·지식의 습득이 더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가 오면, 지금까지의 ‘主體思想’ 교육에도 한계에 부딪치게 되어 合理的인 수정이 없는 한 主體教育은 파산국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단행본 >

- 강광식·김갑철, 「共産主義 批判方法論 摸索」, 서울: 한국정신문화원, 1987.
- 고현욱, 「북한 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 돌베개, 1988.
- 금성청년출판사, 「주체의 학습론」, 서울; 미래사, 1989.
- 김갑철·고성준, 「主體思想과 北韓社會主義」, 서울; 文佑社, 1988.
- 김갑철, 「北韓共産主義 理論과 實際」, 서울; 文佑社, 1984.
- 김운태, 「韓國政治論」, 서울; 博英社, 1984.
- 김형찬, 「북한 교육 발달사」, 서울; 한백사, 1988.
- 사회과학출판사,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주체사상 총서 1, 서울; 백산서당, 1989.
- _____, 「주체사상의 사회역사 원리」, 주체사상 총서 2, 서울; 백산서당, 1989.
- _____,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 주체사상 총서 3, 서울; 백산서당, 1989.
- _____,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이론」, 주체사상 총서 4, 서울; 백산서당, 1989.
- _____,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론」, 주체사상 총서 5, 서울; 태백, 1989.
- _____, 「인간개조이론」, 주체사상 총서 6, 서울; 조국, 1989.
- _____, 「사회주의 경제건설 이론」, 주체사상 총서 7, 서울; 태백, 1989.
- _____, 「사회주의 문화 건설이론」, 주체사상 총서 8, 서울; 조국, 1989.
- _____, 「영도체제」, 주체사상 총서 9, 서울; 지평, 1989.

- _____, 「북한의 사상 - 주체의 사상·이론·방법 -」 태백 총서 11. 서울 ; 태백, 1988.
- _____, 「세계와 인간 - 주체의 존재·인식·실천」. 서울 ; 한마당, 1988.
- _____, 「북한 '조선로동당' 대회 주요 문헌집」. 서울 ; 돌베개, 1988.
- _____, 「北韓, 1945 ~ 1988」. 서울 ; 동아일보사 편, 1989.
- _____, 「北韓社會 文化構造의 解剖」. 서울 ; 자유평론사.
- 양호민·강인덕, 「共產主義 批判」. 서울 ; 극동문제연구소, 1982.
- 이상우, 「韓國의 安保環境」 제 2 집. 서울 ; 서강대학교 출판부, 1986.
- _____, 「韓國의 自己發見」. 서울 ; 정신문화연구원, 1981.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정치사전」.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3.
- 이상우, 「학교 통일교육의 새로운 전개방향」. 서울 ; 교육개발원, 1988.
- _____, 「北韓概要」. 서울 ; 平和統一研究所, 1986.
- _____, 「北韓便覽」. 서울 ; 共產圈問題研究所, 1971.
- _____, 「北韓總覽」. 서울 ; 北韓研究所, 1985.
- _____, 「民族再結合의 摸索」 통일교육자료 제 38 집. 서울 ; 국토통일원, 1988.
- 서동익, 「북에서 사는 모습」. 서울 ; 북한연구소, 1987.
- Gordon White, North Korean Juche: The Political Economy of Independence (Bulletin of Concerned Asian Scholars, 1975).
- Inoue, Shuhachi, Modern Korea and Kim Jong Il, Tokyo : Yuzankaku, 1984.
- Kim, Il-Pyong, Communist Politics in North Korea (New York ; Frederick A. Praeger, 1975).
- Missouri, Muhammal, al., Kimilsungism: Theory and Practice (Pyong Yang ;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78).

- Nam, Koon-woo, The North Korean Communist Leadership, 1945~1965
(Alabama ;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74).
- Scalapino, Robert A., ed., North Korea Today (New York ; Frederick A. Praeger, 1963).
- Scalapino, Robert A. and Lee, Chong-sik, Communism in Korea, I·II
(Berkeley : Univ. of California Press, 1972).

〈 논 문 〉

- 고성준. “주체사상의 본질과 기능”. 「統一問題研究」. 서울 : 국토통일원, 1989, 여름.
- 김남식. “다시 강조되는 사상교양 사업”. 「사회와 사상」. 통권 제 15호. 서울 : 한길사, 1989, 11월.
- 김형찬. “북한의 중등교육 변천과정”. 「北韓」. 통권 150호. 1984, 6월.
- 문용린. “北韓의 學校教育課程 分析 - 人民學校 및 高等中學校 -”. 서울 ;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87. 12.
- 박수명. “南北韓 民族異質化의 原因考察 - 北韓의 政治思想 教育을 中心으로 -”. 「통일논총」 제 3집. 부산 ; 부산대 통일문제연구소, 1981.
- 박용현. “北韓 教育制度和 소련의 영향”. 「北韓」. 서울 ; 북한연구소, 1976, 12월
- 서희수. “北韓의 共產主義 教育理念 및 實態”. 「통일논총」 제 2집. 부산 ; 부산대 통일문제연구소, 1979.
- 이계희. “북한의 사상정책과 정치교육”. 「민족 재결합의 모색」. 통일교육 자료 제 40집. 서울 ; 국토통일원, 1988.
- 이명재. “南北韓 이데올로기 教育의 比較研究”. 「논문집」 제 14집. 서울 ; 상명여자대학, 1984.

- 이석재.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분석”. 「통일논총」 제 6집. 부산 ; 부산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1984.
- 이우영. “北韓靑少年의 精神戰力 形成에 관한 考察 — 인간개조를 위한 北韓의 思想教育 —”. 「平和研究」 제 5집. 경북대학교 평화문제연구소, 1979. 12.
- 이준형. “北韓의 政治社會化 變因에 관한 研究 — 學校變因을 中心으로 —”. 「共產圈 研究論叢」. 서울 ; 한국공산권연구협의회, 1988.
- 양성철. “남북한 교육이념 비교분석”. 「平和研究」 제 5권 제 2호. 서울 ; 경희대학교 국제 평화연구소, 1987.12.
- 임종규. “北韓 政治教化 教育에 관한 研究”. 「教育論叢」 제 3집. 서울 ; 한국의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1987.
- 임종혁. “北韓의 教育·文化”. 「民主統一論」. 서울 ;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 1989.
- 정세구. “北韓 靑少年 思想教育 方法의 類型”. 「國民精神教育의 課題」. 서울 ; 교육과학사, 1985.
- 최광석. “金正日 體制下的 政治思想 教育”. 서울 ; 北韓研究所 研究部, 1983. 11.
- 최광석. “「北韓」에 있어서의 共產主義 이데올로기 教育”. 「亞細亞研究」. Vol. XIII, No.1,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0.
- 차경수. “공산주의 교육과 정치사회화 과정”. 「統一政策」 4권 3호. 平和統一研究所, 1978.

< ABSTRACT >

A Study on North Korea's Juche Idea Education

—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Secondary School Curricula —

Park, Kyung Ran

Department of National Ethics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o, Seong Joon

This study aims at analysing the Juche idea education which has influenced upon the way of thinking and values of North Korean young people in a Communist ideology oriented society, for forty years since August 15 liberation.

1. The nature of education; formation of thought which is fundamental in reshaping of human character in accordance with the party's supreme thought, "Self-reliance ideology."
2. The contents of education; class education, communism supermacy education ... Communist system supermacy education, labor education, collectivism education, revolutionary spirit fostering education, Kim Il Sung worship education ... education of party policy, Communist morality, Kim Il Sung as great chief, and his revolutionary activities, all these occupy a large part of regular middle and high school textbooks.
3. Educational method; theoretical and practical method, combination of education and labor. Two methods are presented: 1) education through teaching (explanation and persuasion, question — and answer, positive

examples and influence) and 2) education through extra curricular activities (organized revolutionary life). Cramming system is utilized and class and outside class activities are all strictly controled.

These methods cause students to lose their self — consciousness and power of judgment. When something wrong happens to Kim Il Sung's dictatorial system, North Korean students may lose their sense of directions and fall into confusion. The cramming system of ideological education will exterminate human instinct and eventually deform human nature itself.

Finally, after Kim Il Sung's death the Juche idea education of North Korea will be changed, like that of Communist China and the Soviet Russia, since Kim Il Sung worshipping declines. Accordingly the political education for the maintenance of collective ideology will replace the individual worshipping education. Technical knowledge and skills will be emphasized, putting an end to the Juche idea education.

